

투데이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돌파

올해 1000만번째 외국인 관광객이 21일 입국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가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의혜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돌파 기념 행사를 열었다.

최광식 문화부 장관은 행사에서 1천만번째로 입국한 중국인 리팅팅(여·28)씨에게 꽃다발과 기념패를 증정했다. 리씨는 상하이발 아시아나항공 368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문화부는 연말까지 100만여명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올해 외래 관광객 수가 11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인구는 1978년 100만명에서 2000년 500만명을 넘어섰던 지난해 980만명으로 집계됐다.

문화부는 관광객이 증가한 이유로 G20과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 한류열풍으로 인한 국제 제과,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등을 꼽았다.

광주정보문화진흥원장에 김용관 콘텐츠진흥원 팀장



제 5대 광주정보문화진흥원장에 김용관 콘텐츠진흥원 팀장이 선임됐다.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진흥원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2명의 후보 중 김 팀장을 차기 원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3년이다.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지방이전 TF팀장을 맡고 있는 김 선임원장은 지난 1984년부터 2002년까지 문화관광부 예술국과 문화산업국 문화예술기획사무를 담당했다.

이후 한국게임산업진흥원 게임아카데미부장을 거쳐 한국콘텐츠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 인력양성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 작은도서관 500개로 늘린다

2018년까지 1000억 투입...시·구립 도서관은 30개로 확충

광주시가 대대적인 도서관 늘리기 사업을 통해 '책 읽는 문화도시 광주' 만들기에 나선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018년까지 총 10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 시·구립 도서관을 현 17개 관에서 30개 관으로 늘려 시민 5만명당 도서관 1개관 수준으로 확충한다. 또 주민생활공간과 함께하는 작은 도서관도 현 269개관에서 500개관으로 늘려 1000세대당 1개소 수준으로 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157억 4500만원을 들여 서구

농성동과 남구 주월동, 광산구 장덕동 등 3곳에 구립 도서관을 건립중이며, 오는 2014년부터는 시립도서관이 없는 서구와 광산구에 각 100억원씩을 들여 시립 도서관 2곳을 세울 계획이다. 시립도서관 1관당 전체면적은 2500㎡로, 지식정보·문화·교육 등 문화복합도서관으로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규모 주택단지외 학교 및 문화시설이 연계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립도서관 7개관과 교육청 산하 도서관 1개관도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다. 1개관당 50억원(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안팎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이와는 별개로 주민밀착형 도서관인 작은도서관을 1000세대당(2011년 기준 광주 총 54만 9105세대) 1개관 수준으로 확충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현재 269개관인 작은도서관을 매년 50여개관씩 5년간 확충해 500개관으로 늘릴 방침이다. 작은도서관은 1개관당 1100만원이 지원되며, 인권도시 광주와 어울리는 책 카페, 헌책 카페, 남도예술 책 카페 등의 테마가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 다양한 생활·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여성들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수제공방 등 문화사랑방 기능도 갖추게 된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통해 2018년까지 매년 3~5개관씩 공립작은도서관 20개관을 추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 송영희 도서관담당관은 "새로 짓게 되는 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읽는 기능을 뛰어넘어 지역민들의 지식정보 및 커뮤니티 복합거점시설로 만들 계획"이라며 "신설 도서관이 들어설 곳은 도서관의 이용 격차 해소 및 자치구간 형평성 유지 등을 고려해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

광주시민 사먹는 물값만 950억원

수돗물 불신 심각...1년간 물값 1850억 지출

광주시민이 한해 수돗물 값으로 지출하고 있는 돈은 900억원 정도이지만, 광주 수돗물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정수기 사용 및 생수 구입 등으로 950억원 가량을 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의회 조오섭(민주·북구 2)의원이 22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시민이 1년 동안 물 값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1850억원 가량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수돗물 값으로 900억원

이 지출되지만, 나머지 950억원이 정수기와 생수 구입비로 추가 지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52만 가구 중 정수기 보급률은 44.2%로, 23만 가구가 사용하고 있다.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1가구 당 정수기 렌탈비 및 필터 교환비를 합달 평균 2~3만원을 지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은 "정수기 사용 등 정수기 사용 등으로 지출되는 돈이 550억원에 이른다. 또한, 광주지역 1년 생수 판매량이 4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를 합산

하면 한해 동안 950억원이 추가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조 의원은 "이처럼 수돗물 이외에 추가로 지출되고 있는 돈은 시민들의 생활비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는 광주시민들이 여전히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광주시가 안전한 수돗물 생산과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의원은 한해 상수도 누수량이 2000만ℓ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

/최권일기자 cki@

법사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불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의무 휴업일을 월 3일까지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을 4시간 확대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처리를 보류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여야 간사 협의 를 거쳐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즉각적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려 일단 제2반안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골목상권 보호 등을 들어 이날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김희선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소위 회부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골목상권 보호 등 경제민주화를 말해 이 법에 동조할 것으로 믿었

데 왜 지연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박영선 위원장 대신 사회를 맡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관례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위에 회부시켜 온데다 이 자리에서 토론에 의해 결정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소위 회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제2반안 소위는 22일 오전 회의를 열어 논의 키로 했으나 개정안 처리에 합의할지는 미지수여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

다문화 혼인 줄었다 전남 감소폭 가장 커

국제결혼에 대한 규제 강화로 지난해 한국인과 외국인(귀화자 포함)의 혼인 건수는 다소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이혼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20.6% 줄어든 1129건으로 전국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1년 다문화인구 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3만695건으로, 전년 대비 12.5% 줄어 들었다. 다문화 혼인은 2008년 3만6629건에서 2009년 3만3862건, 2010년 3만5098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는 국제결혼에 따른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관련법 제·개정 등으로 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초혼 연령은 남성이 36.1세로 0.4세 낮아진 반면 여성은 26.6세로 0.4세 높아졌다. 초혼 연령차도 10.3세에서 9.5세로 줄어 들었다.

지역별 혼인 건수는 경기도가 73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6644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문화 혼인은 줄어든 반면 이혼은 전년보다 0.9% 증가했다. 이혼 건수는 2009년 1만3653건, 2010년 1만4319건, 2011년 1만445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평균 결혼생활기간은 4.9년으로 한국인 간 평균 결혼기간(14.4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년보다는 0.2년 증가했다. /오영록기자 kroh@



"사랑의 연탄 들어갑니다~" 광운대 광주시장이 21일 오후 시청과 동구청 공직자, 동구구민회 등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동구 산수동 저소득층 2가구에 '사랑의 연탄' 680장을 직접 배달하고 있다. /김진표기자 jeans@kwangju.co.kr

뉴스 브리핑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2.8% 인상 될 듯

2013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이 2% 중후반대에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공무원의 내년 봉급 인상률인 2.8%와 맞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공공기관운영위

원회를 열어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 의결한다. 기재부는 지침의 핵심인 총인건비 인상률(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 제외)을 2%대 중후반에서 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연말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

올해 연말부터는 서울과 부산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자동차세 납기개시일인 다음달 1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

세,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포인트를 써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카드는 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 등 10개다. 서울, 광주, 전북 등 3개시의 포인트는 내년 상반기부터 쓸 수 있게 된다.

운명철학

사람의 길흉화복이라는 것이 과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일까? 또는 운명적 접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 노력과 기회로 강호의 영웅호걸이 탄생되고, 21세기 현대문명아래서도 죽한계 제대로 못먹고, 신음하는 노후인생과 빈명들은 정녕 노력을 안해서였을까?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의 분수(운명)를 모르고, 분마치며 날뛰면서 청춘과 일생을 허생낭사한 결과는 어떠한가? 두번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흐름에서 참으로 선천과 운명적으로 부여받은 스스로의 복덕과 관운 재운 부부 지식 학은 건강등이 자신의 숙명관에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 지 참고점점 해보는 것이 지혜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단 맞지 않으면 무조건 무료 중국, 대만, 대한민국 자미두수 대가!

경천동지할 비술인(전문 자미두수)로 수십년을 요달한 경지에서 인생길을 통쾌하게 안내함. 역술과 풍수지리 참선의 길 기초부터 무료강의의 무료 개인지도 자격제한 없음(무속인, 역술인 환영)

감정강의장소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95-2 (광주광역시 상류 소재원 주차장 아래 하천변) 철학연구소원(진짜꿈담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사 柳無山居士

신용카드 한도 구매 사용한도만큼 현금으로!

상품권 매입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법인개인 출장가능!

현금필요하신분 3분이내 즉시해결!

H. 010-2082-6353 TEL. 062)383-6364

첨단2지구 토담빌딩 상가·분양 임대

"8,000세대 독점상권 선점가능"

Table with 2 columns: 층 (Floor) and 내용 (Content). 1층: 농협, 카페메네, 투사랑입점 확정. 2층: 보험, 증권사, 호프, 병·의원. 3~5층: 전문클리닉, 한의원. 6~7층: 전문학원. 8층: 패밀리레스토랑, 스카이라운지, BAR.



시공: 토담건설 분양 및 임대문의: 062-576-8938·016-885-0881

Advertisement for Huros Premium 도시형생활주택. Features include: 총 118세대 (5TYPE / 41m~65m), 1층 상가 분양완료, 소액투자에 정답 5천만원 소형아파트 2채 가능, 모델하우스 12월 1일 오픈. Location: 첨단2지구. Contact: 062-576-8938·016-885-0881.